

베드로전서 개관

1. 개요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아래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저자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거룩한 삶, 복음적 인내, 그리고 궁극적 구원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 저작 연대

- AD 62~64 년경,
 - 네로 황제의 박해 직전 또는 직후로 추정됩니다.
 - 고난과 불안 속에서 교회를 붙들기 위한 시기의 서신입니다.
-

3. 저자

-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
 -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5:1)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

4. 기록 목적

-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정체성과 소망을 확고히 하도록 격려하고,
-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세상 앞에 복음을 증언하게 하며,
- 고난의 의미와 그리스도 중심의 인내 신학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5. 단락 구분

구분	내용
1:1-2:10	부르심 받은 백성의 정체성과 구원의 소망
2:11-3:12	세상 속에서의 선한 행실 - 가정, 사회, 교회
3:13-4:19	고난의 의미와 인내의 신학
5장	교회 지도자의 자세와 영적 싸움

6. 중심 메시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2: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이다.” (4:19)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낯선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의 여정이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7. 신학적 이슈

① 고난의 신학

- 고난은 저주가 아닌, 은혜의 수단입니다.
-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 받으셨고(3:18), 성도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2:21).

② 성도의 정체성

- 믿는 자는 “나그네”이자 “택하신 족속”입니다.
- 이중 정체성(세상에 속하지 않음 + 하나님께 속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③ 관계 윤리

- 가정, 사회, 교회 안에서의 자세를 복음적 겸손과 선행 중심으로 권면합니다. 이는 성도의 세상 속 증인의 삶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베드로전서 해석

①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 강조

- 2:9-10 은 출애굽기 19 장과 호세아를 인용하여 교회를 새 언약 공동체로 재정의합니다.
- 개혁주의는 이를 구약과 신약의 언약 연속성으로 해석하며, 교회가 언약 백성의 실체임을 강조합니다.

② 고난과 예정

-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유익하다는 관점은 개혁주의 예정론과 섭리 신학과 깊이 연결됩니다.

③ 성도의 견인과 인내

-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는 삶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실천적으로 구현한 모습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버티며,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합니다 (5:10).